가정예배

• 성경 : 잠언 23장 22-26절
• 찬송 :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한상영
광주창대교회 담임
미션21 이사장

네 부모를 즐겁게 하라

노인들을 우대했던 여러 문헌들을 조사해 보면 문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문성이란 아침 일찍 일어나거나 저녁에 잠들 때 아들이나 며느리가 반드시 어른에게 문안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또 새로운 과일이 나거나 별식이 생기면 반드시 노부모가 먼저 드신 후에 자녀들이 임을 댔습니다. 주부권을 상징하는 뒤주 열쇠와 안방차지는 늙어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가 갖고 있다가 돌아가실 때에야 맏며느리에게 이양을 했습니다.

을에 진치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인연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마을 노인들을 모셔다가 상좌에 모시고 대접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추렴해서 돼지나 소를 잡으면 배장이라 해서 내장을 그 마을의 노인분들에게 나누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부모가 늙으면 벼슬을 고향 가까이 옮기게 해서 봉양케 하고 더 늙으면 봉양을 잘 하도록 유급휴직까지 시켰습니다. 회갑이 지나면 그 고을 현감이 고희가 지나면 감사가 백수가 지나면 임금님이 춘추를 가려 주시어 옷을 내려 연치를 치하했습니다.

동서고금에 이렇게 노인을 우대한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만이 어른을 공경하고 윗사람을 높일 줄 아는 미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노인천국이 이제는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노부모 모시기가 힘겹다고 해서 관광지에 부모를 버려두고 훌쩍 이민을 떠나버리는 자식들이 있는가하면 질병도 없는 노부모를 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켜서 몇 달간이고 버려두는 신판 고려장이 예사로 자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딤후3:1-5절 말씀을 보면 종말의 현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타락의 증상으로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이런 부모를 유기하고 대적하고 무시하는 종말의 징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효도관이 이렇게 쉽게 무너진 이유를 몇 가지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급속한 핵가족 움직임, 자꾸 분가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극단의 개인주의, 모두가 자기만을 챙기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풍조가 가정 내에서 계속 팽배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난이 부모를 모시는 일에 어렵게 만들고 또 노인을 하대하는 이런 움직임이 급속도로 팽창해 가고 있습니다. 효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지고 문화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변질되어야 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효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 섬기는 것을 동일시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기독교는 살아생전에 효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가 아니라 살아생전에 부모를 잘 섬길 것을 요청합니다. 구약의 엄격한 효도에 대한 가르침을 한 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형을 할 때 돌로 쳐 죽이는 즉심이 있었습니다. 끌어내어 성 밖에 나가 온 동네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커다란 돌무더기가 될 때까지 돌을 던집니다. 이 돌무더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으면 저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나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돌무더기를 보면서 교훈을 삼습니다. 신21:21절에 보면 부모를 대적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출21:15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21:17절과 레위기20:9절에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를 보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잠30: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천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겔22: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명이 단축이 됐습니다. 이방인들의 능욕을 받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만국인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 이유를 겔22:7절에 부모를 업신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홀대하는 것, 방치 하는 것, 그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과 동일시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하나님 섬기듯이 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신앙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이것 다 가정에서 배웁니다. 부모를 거절하거나 부모를 무시하게 되면 이런 영적 질서를 배울 기회를 놓쳐 버립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부모를 섬겨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섬김의 자세라고 말씀합니다.

마무리 기도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미술대전 특선 작가 김창남 화백 그림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133. 그리스도의 겸손(빌립보서 2:1-11)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죄로 오염되어 있는지를 마태복음 15:19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거와 훼방이니" 그러므로 예수의 마음이 없는 인간의 모임은 시기와 다툼과 분쟁만이 고개를 들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죄성이 있는 인간의 마음을 깨달은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다. 즉, 부패된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개조시켜야 된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복음적 생활관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분의 생활을 모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살라는 말씀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마 11:29)라고 말씀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다.

/그림=김창남 화백 · 글=김승원 목사

전도메시지

김승원
주사랑교회 담임
광주학원복음화협의회 사무총장

마음의 치유(healing)

유명한 흑인 오페라 가수인 제시 놀만(Jessye Norman)이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것을 축하하여 영국 런던 웸블리 스테디엄에서 열린 음악 공연회에 출연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순서는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대부분의 출연자들은 인기 록 밴드 그룹들과 록 가수들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그룹이 무대에 올라 공연할 때마다 7만 이상의 군중들은 광란에 가까운 기성과 흥분으로 온 종일 열광했다고 합니다. 무려 10시간이상의 광란의 열풍이 지나간 후 어두워진 밤 제시 놀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고 무대에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그녀는 반주도 없이 아카펠라로 천천히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뜻밖에 찬송가였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미하는 전직 노예상인이었다가 회개하고 구원받아 노예 해방을 위해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존 뉴턴이 작사한 찬송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새찬송가 305장).

장래는 숨소리하나 들리지 않도록 조용해 졌습니다. 3절이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은 잊혀졌던 이 찬송을 따라 조용히 노래하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노래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스테디엄을 떠나지 못했고 사람들은 깊은 적막 속에서 침묵에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그 제시 놀만의 노래는 다음 주일 적지 않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했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날 놀만의 노래 속에 증거된 그리스도의 은혜가 병들고 상처 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상처를 입습니다. 살아가는 시간과 비례해 상처는 누적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살다보면 '상대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내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편'에게서 받는 상처가 훨씬 더 아픕니다.

김승섭 교수는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에서 '사회역학'(Social Epidemiology)이란 학문을 통해, 혐오나 차별 그리고 고용불안과 같은 사회적 상처가 어떻게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지를 추적하고 분석합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차별이나 폭력을 겪고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못할 때, 아니 애써 괜찮다고 생각할 때 실은 우리 몸이 더 아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사회적 원인을 가진 질병은 사회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최첨단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회의 변화 없이, 즉 인간관계의 변화 없이 개인은 절대로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회역학적 치료보다도 더 소중한 치료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5절에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인간관계속에서 상처를 입고 마음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상한 심령이 치유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든 상처와 아픔을 이겨내는 귀한 삶이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션21 후원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소망교회

표어 :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담임 이정조목사 / 담임 최정원목사
• 주일오전 1부 9:00 / 2부 11:00 / 3부 1:00(청년부)
• 주일오후 3:00
• 수요밤예배 7:30
• 금요기도회 8:00
• 새벽기도회 5:00
61024 광주광역시 북구 상촌로 18(양산동 209-165)
전화 : 062)572-1004, FAX : 062)572-1005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무등교회

표어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목표 :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담임 조성진 목사
• 주일오전 11:00
• 주일오후 2:00
• 수요밤예배 7:30
• 금요기도회 9:00
• 새벽기도회 5:00
61496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96번길 1
대표전화 : 062)225-2405 , FAX : 062)236-2101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수영락교회

표어 :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함께하는 교회
담임 김성기목사
• 주일오전 1부 8:00 / 2부 11:00
• 주일오후찬양 1:30
• 수요밤예배 7:30
• 새벽기도회 5:00
www.youngrak.or.kr
59754 전남 여수시 봉산새절 3길 2(봉산동)
대표전화 : 061)641-6510-3 , FAX : 061)641-6514

새 날 학 교

교육목표
1. 삶을 경외하는 삶
2. 섬김과 나눔의 삶
3. 세계를 변화시키는 삶
4. 다문화를 포용하는 삶
교장 이천영 목사
62457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29
대표전화 : (062)943-8935 FAX : 062)943-1634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사랑교회

표어 :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 28:19-20)
담임 김승원 목사
• 주일오전 1부 7:30 / 2부 11:00
• 주일오후 1:00
• 수요밤예배 7:00
• 새벽기도회 5:00
62283 광주 광산구 첨단내촌로 35번길 15-10
대표전화 062)954-0191, 954-0190(사택)

기독교한국침례회
수정교회

표어 : 예수의 증인되어 교회를 부흥시키자
담임 정찬균 목사
• 새벽기도회 5:00
• 주일오전 11:30
• 주일오후찬양 3:30
• 수요밤예배 7:30
• 금요기도회 8:3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727번길 23
대표전화 : 062)232-0354 www.hamanse.or.kr

대한예수교장로회
서광주교회

표어 :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자 (수3:5-6)
담임 조규성 목사
• 주일오전 2부 11:00
• 주일저녁 7:00
• 수요기도회 7:30
• 새벽기도회 5:00
61649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99번길 10
062)365-7004, 070-7572-9092 FAX : 062)365-7004

대한예수교장로회
거성교회

표어 :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담임 박혜성 목사
• 주일오전 1부 9:00 / 2부 11:00
• 주일오후 2:00
• 수요밤예배 7:30
• 금요기도회 9:00
• 새벽기도회 5:30
62308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11번안길 24
대표전화 : 062) 951-9691 FAX : 062) 951-9695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은평교회

표어 : 새 일을 행하는 교회(사43:19)
담임 김범택 목사
• 주일오전 10:40
• 주일오후 1:40
• 수요밤예배 7:15
• 금요기도회 8:30
• 새벽기도회 5:00
62002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운천길 54-8(금호동)
대표전화 : 062)375-7962 · 372-1004, 010-4605-7962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남북교회

표어 : 여호와 닛시(출17:15)
담임 박혜영 목사
• 주일오전 11:00
• 주일오후 2:00
• 청년부예배 오후 12:30
• 금요제자훈련 저녁 8:30
• 아동부, 중, 고등부오전 9:00 (각 부서)
• 수요밤예배 7:00
• 새벽기도회 5:00
506-301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77-25
대표전화 : 062)956-0114, 951-3221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수지구촌교회

표어 : 가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라
담임 김정배 목사
• 주일오전 11:00
• 주일오후 7:30
• 수요밤예배 7:30
• 금요기도회 9:00
59676 전라남도 여수시 망마로 39-1
대표전화 : (061)682-5898, 686-7217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은성교회

표어 :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성도 (엡 1:17)
담임 안점수목사
• 주일오전 1부 9:10 / 2부 11:00
• 주일오후 2:00
• 수요밤예배 7:00
• 새벽기도회 5:00
61676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풍암로 68번길14
대표전화 : 062)671-1001 FAX : 062)671-1002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정다운교회

표어 : "하나님의 말씀"을 길이 알자
1. 예수를 먹자 2. 피를 마시자
3. 신 떡을 먹자 4. 말씀을 먹자
5. 성령을 마시자 6. 성교를 먹자
담임 김종주목사
• 주일오전 1부 9:20 / 2부 11:10
• 주일오후 2:00
• 수요밤예배 7:30
• 금요기도회 7:30
• 새벽기도회 5:00
61687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9번길 29-1 (주월1동 1270-8)
대표전화 : 062)675-1004, 070-7106-1004 FAX : 651-0923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사랑교회

표어 : 오직 기도로 영적 부흥을!
담임 리종기 목사
• 주일오전 1부 7:00 / 2부 9:00 / 3부 11:00
• 주일밤예배 7:00
• 수요밤예배 7:00
622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 95번길 36
대표전화 : 062)954-8800 FAX : 062)954-8808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빛교회

표어 :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를 자유케하리라(요8:32)
담임 이상관목사
• 주일오전 11:00
• 주일오후 1:30
• 수요밤예배 7:00
• 금요기도회 7:30
62244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남길 124-16 (도천동 355-7)
대표전화 : 062)371-9206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남은광교회

표어 : 성도답고 교회다워라
담임 김회중목사
• 주일오전 1부 8:30 / 2부 11:00
• 주일오후찬양 2:30
• 수요밤예배 7:30
• 금요기도회 8:00
62349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풍암로 54번길 21-7
대표전화 : 062)953-3983 FAX : 062)952-1466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영교회

표어 : 오직 영혼 구원
담임 손석호목사
• 주일오전 1부 9:00 / 2부 11:00
• 주일오후 2:00
• 수요밤예배 7:30
• 금요기도회 8:00
61083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신촌길 26
대표전화 : 062)574-0188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만백성교회

표어 : 성령이 일하시는교회
담임 강희욱 목사
• 새벽기도회 5:00
• 주일오전 1부 9:30 / 2부 11:00
• 주일밤예배 6:3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696번길 7(마륵동 172-7번지)
대표전화 : 062)382-1141~2 FAX. 062)383-1143